

## 한농공 무진장지사, 저수지 통합방제훈련



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는 지난 15일 와룡저수지(장수군 천천면 남양리)에서 '2023년 수질오염 통합방제 훈련'을 전개했다.

저수지 오염사고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초기대응을 통해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이번 훈련은 전 직원이 참여해 녹조발생 및 유류유출 상황을 설정하고 매뉴얼에 따라 상황전파, 방제작업, 사후조치 순으로 진행됐다.

농업용수 수질관리가 점점 중요해지고 오염사고 또한 증가하고 있어 공사는 방제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모의훈련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. 이밖에도 유관기관 합동 수변정화활동 및 수질환경보전회를 개최하는 등 물관리 거버넌스 운영에 힘쓰고 있다.

편동현 지사장은 "유사시에 대비한 방제체계를 더욱 공고히 구축해 깨끗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"고 밝혔다.

/장수=유기종 기자

전북을 바꾸는 힘! 새전북신문 \*무단전재-재배포 금지

지면 : 2023-06-20 6면

<http://sjbnews.com/783789>